

# 익산시 공약이행 '파란불'

##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50개 세부사업 중 19건 완료·28건 추진 중

익산시(시장 정현을)는 11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김철모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6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전통과 미래를 이룰 3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 △북부권역 농업행정 수도 건설 △신진 주민자치제도 시행으로 시민권 강화 △항토산업 활성화 및 지역상권 보호 등 7개 분야 50개의 세부 공약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논의했다.

주요 완료 사업은 북부지역 농업행

정수도 건설, 문화예술 상설공연 확대, 시민참여형 생생공간 현장간담회 등 19건이 공약이행이 완료되거나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 중이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 및 뉴딜일자리사업, 마동·동산동 주민센터 조 기 신축, 혁신교육특구 지정, 버스정 보시스템(BIS) 구축 승강장 현대화 사업, 전라선 폐선부지공원사업 등 28건은 계획한 목표대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특히 핵심공약이었던 북부지역 농업행정수도 건설은 북부권 활성화와 익산농업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과 뉴딜일자리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시는 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부진사업 해소와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국도비 등 재원 확보방안 마련 등 공약이행을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철모 익산부시장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시기인 만큼 공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이며 소통하는 일인 만큼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군산시 특교세 확보 결실... 지역사업 탄력

## 월명체육센터 건립·CCTV 구축사업에 총 15억원 성과

군산시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현안 해결 및 재난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는 군산시와 김관영 국회의원의 긴밀한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향후 월명체육센터 건립과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을 통해 군산시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안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여 진행해온 월명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이번에 추가로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

보되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월명체육센터는 지상 3층 연면적 1,416.15㎡의 규모로 조성되어 오는 2018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며, 선수들의 체력강화 훈련장과 전지 훈련장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지역민들의 건강 생활 유지를 위한 기초체력 측정 및 운동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6억원이 확보된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은 나운

후주택밀집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총 40여 개소에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범죄 예방효과 및 범죄대응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교부세 확보로 지역민들의 건강복지와 안전생활에 기여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가적인 교부세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분을 포함해 2017년도 7건의 사업에서 총 32억여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산=김필곤 기자



익산시원로회 회원 일행이 10일 익산시의회를 방문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익산시 원로회, 시의회 방문 '소통의 장'

지난 10일 익산시원로회(회장 주방식) 회원 일행이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를 방문했다. 이는 시민을 위한 열린의회 구현을 통한 익산시의회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각계각층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방문한 익산시원로회 회원단은 주방식 회장을 비롯하여 20여명의 회원으로 소병홍 의장과 김정수 부의장 등 의장단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익산=장영원 기자

이 자리에서 원로회는, 익산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황토호 복원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건의와 해결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고 익산시 인화동 ~ 민정강 접근 도로 개설 등을 주문하였다.

소병홍 의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에 감사를 전하고, "이번 만남을 통해 앞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전북서부보훈지청장에 황선우 서기관 부임

전북서부보훈지청장이 지난 10일 제39대 전북서부보훈지청장에 황선우(55·사진) 서기관이 부임했다고 11일 밝혔다.

황선우 지청장은 이날 팔봉 군경묘지에 있는 총령탑을 참배한 후, 취임식을 가지고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황선우 지청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1985년 익산지청(현 전북서부보훈지청)에서 첫 공무원 생활을 시작해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 보상책과, 등록관리과 등을 두루 걸친 보훈행정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황선우 지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현장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실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새도약 추진방향·변경사항 등 교육

익산시가 11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전 부서 담당계장을 대상으로 2018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2018년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내년도 중점추진방향 및 주요변경사항, 일자리와 연계된 사업 발굴,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시는 내년에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과 공공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 조직 가능한 사업을 중점 발굴해 장기적으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롭게 가칭 '뉴딜 도우미'를 채용해 참여자와 수시로 진로상담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자격증 취득 시 응시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뉴딜일자리 사업은 익산시에서 2016년도부터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행한 대표적인 청년일자리사업이다. 기존 공공일자리사업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정비 등 단순 업무 보다는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발굴해 참여자가 다양한 업무경험과 능력을 쌓아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일자리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시는 새 정부의 일자리 중심 행정체제와 발맞춰 뉴딜일자리사업을 새롭게 도약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자에게는 업무경험과 능력을 길러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안정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민간일거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재가장애인 가을나들이 눈길 군산보건소 재활사업 일한

군산시 보건소(소장 정현태)는 11일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의 일환으로 재가(在家)장애인 가을 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일상탈출! 힐링 가을나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평소 경제적 사정이나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외유를 나가기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경험과 활동성을 높이고자 진행된 것으로, 42명의 지체·시각·농아장애인과 자원봉사자들은 천년고찰인 고창의 선운사를 찾아 문화체험과 함께 '힐링 숲속 걷기' 등을 즐기며 추억을 남겼다.

이날 행사에 나온 한 장애인은 "몸이 불편해 밖으로 잘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 답답한 마음이 해소되는 것 같다"며 관계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정현태 보건소장은 "장애인과 봉사자들이 함께 체험하는 행사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며 "보건소에서는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변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재활사업을 통해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필곤 기자

## 주민 참여적 도시재생사업 총력

### 군산시, 내달 11일까지 공모사업 온라인 접수

군산시는 올해로 마무리되는 도시재생선도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주민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공동체 발굴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7년 하반기 도시재생 선도지역 주민공모사업'을 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간 온라인(inta.gosins.go.kr)으로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시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주민공모사업을 진행했으며, 그 중 총 49건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고 2억 2천여 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지역 내 풀뿌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규모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하반기 주민공모사업도 이 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반공모와 기획공모 2개 분야로 진행되며, 총사업비 5천만원의 규모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소규모 환경개선 등과 관련된 10여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00만원(본인부담 10% 이상)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일반공모는 도시재생 사업지에 거주하거나 소재지가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사업체 종사자 또는 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기

획공모는 거주지나 소재지와 관계없이 전문성을 갖춘 3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 공모사업은 방문접수는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으며,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과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은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경우 군산시와 협약 체결 진행 후 보조금을 교부받아 진행하게 된다.

동태문 도시재생과장은 "영화동과 월명동 일원에서 진행해온 군산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올해로 마무리 되지만 이제까지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실시해온 다양한 공모사업을 시행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적 도시재생사업이 시 전체적으로 뻗어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9일 오후 4시에 도시재생지원센터(고우당 관광안내소 2층)에서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찾아가는 도시재생헬퍼를 구성해 주민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발굴과 상담, 기획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군산=김필곤 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